

고대일본의 벽화

- 다카마츠츠키(高松塚) 고분과 키토라 고분 -

하야시 온(林 温) / 게이오 대학 교수, 일본

일본의 고대 벽화의 경우 호오류지(法隆寺) 금당벽화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유물이었지만, 애석하게도 화재로 인해 큰 손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이 위대한 불교 회화작품과는 성격이 다른 벽화를 지닌 다카마츠츠키 고분이 1972년에 발견되었으며, 근래 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닌 또 하나의 고분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들의 제조 시기는 고대 일본이 정치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던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 경으로서, 두 고분의 피장자(被葬者)는 왕족 혹은 중앙의 유력호족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구려 혹은 당(唐)의 분묘 벽화와의 관련성이 이야기되어 왔다. 근래 고구려 고분 벽화가 세계유산에 등록되었고, 또한 중국에서 당대(唐代) 벽화묘가 계속 발견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눈부신 오늘날, 이와 같은 연구 발표하는 대단히 시의 적절한 것이다. 여기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본인에게 있어 커다란 영광이며, 또한 일본의 고분벽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기에 관계자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일본에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부터였지만, 특히 당(唐)이나 한반도의 삼국으로부터 습득한 회화 기술에 의해 7세기 후반에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벽화가 제작되기에 이르렀다. 그 예증이 나라현(奈良県) 내에 있는 호오류지 금당벽화와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이며, 근래 발견된 키토라 고분 벽화이다. 호오류지 금당벽화는 애석하게도 1949년 화재에 의해 커다란 손상을 입고 말았지만, 1972년 2월에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가 발견되었다. 키토라 고분은 이보다 1년 정도 앞서 그 벽화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올해에 들어 신중하게 발굴과 함

께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와 키토라 고분벽화는 나라현 아스카무라(飛鳥村)에서부터 2km의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일한 형식의 고분벽화로서, 제작시기도 반세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양자 모두 묘지(墓誌) 등의 축조 시기를 보여주는 문헌사료가 발굴되지 않아 어느 쪽이 앞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7세기 후반에서부터 8세기 전반 경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카마츠츠키 고분은 지름이 20m, 높이 4-5m이며, 분구(墳丘)는 「판축(版築)」으로 불리는 기법에 의해 조영되었다. 판축이란, 대규모의 건축물의 기단으로서 견뎌 내도록 점토와 모래종류를 섞은 흙을 10cm 전후로 깔고 나서 이것을 두드려 다지는 기법을 말한다. 석곽(石槨)은 응회암(凝灰岩)의 절석(切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는 길이 2.65m, 폭이 103.5cm, 높이 113.4cm이다. 한편 키토라 고분은 그와 동일한 규모의 원분(円墳)이며, 석곽의 안치수는 길이 2.4m, 폭 1.04m, 높이 1.13m로서 다카마츠츠키 고분과 지극히 흡사하지만, 다카마츠츠키와는 달리 측벽(側壁)으로부터 천정에 걸쳐 완만한 아치가 만들어져 있다.

두 벽화는 화제(畵題) 내용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데, 양자 모두 천정에는 천문도(天文圖)가, 측벽 사방(四方)에는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다. 차이점이라 한다면, 다카마츠츠키 고분 벽화에는 이 외에도 남녀의 군상이 그려져 있지만 키토라 고분벽화에는 인물도가 없는 대신 다카마츠츠키에는 없는 십이지상(十二支像)이 그려져 있다.

한편, 두 고분 벽화의 주제는, 물론 공통되는 화제인

바, 즉 천정의 천문도와 측벽의 사신(四神) 및 일월상(日月像)이다. 사신은 천문도안에 그려져 있는 이십팔수(二十八宿)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십팔수를 사방에 칠수(七宿)씩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은 사신에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사신은 방위(方位)를 수호하기 이전에 사방의 성수(星宿)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천정의 천문도와 일월상(日月像) 및 사신은 천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주 혹은 세계의 운행과 그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로 장식된 묘실의 피장자는 그 나름대로의 신분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중국이나 고구려의 묘벽(墓壁)에도 오래전부터 천체가 천정이나 측벽을 장식해 왔지만, 십이지(十二支)가 명확하게 그려진 예는 없다. 중국의 예를 들면 북제(北齊) 시대의 루예묘(婁叡墓, 570) 등에 수두인신상(獸頭人身像)이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려진 위치나 전체의 종류를 볼 때, 이것을 십이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속단하기 어렵다. 분명히 십이지를 조형화한 유물은 수대(隋代) 이후에 나타난다. 수당(隋唐, 6세기-8세기)시기의 중국 묘에서 오히려 십이지는 묘비에 동물의 모습으로 선각(線刻)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두인신상(獸頭人身像)도 소상(塑像) 혹은 도상(陶像)과 같은 입체로서 나타나는 예가 종종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통일신라시대(8세기-9세기)의 분묘 주위에 수두인물의 십이지상(十二支像)의 석조를 둘러싼 예가 있다.

분묘 이외에 사신과 십이지를 조합하여 구성한 예로서, 중국의 거울(鏡)을 들 수 있다. 이미 후한(後漢) 시대에서부터 방격규구사신경(方格規矩四神鏡) 가운데 십이지의 글자를 지닌 경우가 나타난다. 십이지를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수대(隋代)의 유물로는 리토베르크미술관(스위스)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당(唐) 초기의 유물이 중국의 협서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미국 역사박물관(미국 뉴욕) 소장의 사신십이지경(四神十二支鏡)은 다섯 겹의 동심원에 내부에서부터 사신, 십이지수, 팔괘, 이십팔수, 명문대(銘文帶)를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사신·십이지수·이십팔수라는 구성은 틀림없이 키토라

고분벽화와 합치한다. 이십팔수는 성좌(星座)를 표시하지만, 사신의 모습은 키토라 고분상과 닮지 않았으며 십이지 또한 수형(獸形)이다. 그리고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 사신상과 공통성이 높은 정창원(正倉院) 소장의 사신십이지팔괘배원경(四神十二支八卦背円鏡)은 일본에서 제작된 가능성이 높지만, 십이지는 역시 수형(獸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카마츠츠키에 있는 것과 같은 시종이나 시녀는 신성공주묘(新城公主墓)나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 등의 당대(唐代) 묘에 많이 보인다. 중국 혹은 고구려에서의 묘와는 규모가 전혀 다르지만, 키토라나 다카마츠츠키 고분에서는 주요 구성요소만을 콤팩트하게 엮어 놓은 듯한 감이 있다.

간단하게 두 고분벽화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천정의 천문도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북진(北辰)과 그것을 둘러싸는 이십팔수(二十八宿)로 이루어진다. 다카마츠츠키에서는 북극오성(北極五星)과 사보성(四輔星)을 중앙에 놓고, 사방에 칠수(七宿)씩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십팔수는 방형(方形)에 가깝다. 키토라 고분벽화의 천문도는 보다 본격적인 것이다. 성좌(星座)의 수는 모두 68개이며, 금박 처리된 별의 수가 약 350개이다. 기본적으로 삼단(三垣)과 이십팔수가 있고 다카마츠츠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북두칠성이 더해졌다. 내궐·적도·황도·외궐(內軌·赤道·黃道·外軌)을 의미하는 큰 원이 나타나 있지만, 황도는 남북중심선에 대해 동서로 역전되어 있다. 성수(星宿)는 중국이나 고구려의 분묘에 선행 예가 많이 있으며, 본격적인 천문도로서는 장회태자묘(章懷太子墓)에 왕비의 방씨(房氏)를 합장한 때(711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후실 천정이 보고 되어 있지만 많이 손상되었다. 키토라 고분 천정화는 가장 오래된 예의 하나로서 귀중하다.

키토라 고분 석실내의 천정과 측벽 사이에는 꺾여 올려진 천정식의 사면(斜面)이 있으며, 이의 동서면(東西面)에 각각 일상(日像)과 월상(月像)이 그려져 있다. 다카

마츠츠키 고분에서도 동서측벽 중앙 윗부분에 같은 모양의 일월상이 그려져 있으며, 수평선을 겹친 운해(雲海)의 상부에는 원반이 그려져 있는데, 일상은 금반(金盤), 월상은 은반(銀盤)으로 하였다. 아마 원내에는 삼족조(三足鳥)나 월토(月兔) 혹은 두꺼비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수평선 사이에는 여러 단의 돌기가 그려져 먼 산을 의미한다. 이들 표현은 당대(唐代) 회화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사신(四神)의 경우 동쪽에 청룡, 남쪽에 주작,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가 각기 중앙에 그려져 있다. 다카마츠츠키 고분에서는 남쪽 면 벽화가 소실되었으며, 키토라 고분에서는 청룡의 몸통부위가 토사에 의해 감추어져 있다. 현무는 양쪽 벽화 모두 비슷하며, 백호도 방향이 반대이지만 도상은 거의 같은 모습이다.

백호나 청룡은 중국의 북조묘(北朝墓) 혹은 고구려 고분에 나타나있는 것보다는 중국 남조(南朝)의 유물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강소성 단양시 건산금가촌묘(江蘇省 丹陽市 建山金家村墓) 출토의 화상전에 나타난 백호상(白虎像, 남경박물관)은 남제(南齊, 5세기 후반)의 유물이지만, S자형으로 굽어진 긴 목 위의 머리를 보면 눈·코뿐만 아니라 작은 귀, 턱에서부터 뒤로 휘날리는 수염까지 닮아있다. 나아가 내딛고 있는 앞발의 뒤로 젖혀진 형태, 양 어깨부위 꺾수상(蕨手狀)의 장식에서 시작하는 깃털, 신체의 배와 등의 모양 등 형상을 능숙하게 맞추어 놓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백제 송산리 묘벽의 백호상에도 공통되어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키토라 고분상의 도상의 전래경로를 생각할 때 흥미롭다.

키토라 고분의 주작상(朱雀像)은 벼슬과 귀와 같은 깃털, 우복(雨覆)의 형상, 여러 개의 긴 깃털달린 꼬리 등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쌍영총(雙楹塚) 후실의 주작상은, 꼬리 깃털이나 정강이 부위의 깃털에 있어 반점모양이 키토라 고분에 가깝다. 또한 강서중묘(江西中墓)에 그려져 있는 주작상은 우복의 형태나 육수(肉垂)에서 닮아 있다. 그러나 키토라 고분상에서 확인되는 「귀(장식 깃털?)와 유사한 예는, 좁은 식견으로 볼 때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나오지 않고 중국 당(唐)대의 절민태자묘(節愍太子墓) 벽화 등의 영조(靈鳥)에 나타나 있다.

현무는 거북이와 이에 얽혀있는 뱀이 커다란 하나의 꼬리를 만드는 조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뱀은 한번 감은 모습이다. 신수적(神獸的)인 표현은 적고, 당(唐)대 미술의 영향을 받은 정창원 보물 중에 있는 현무 혹은 거북이의 모습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사신이나 일월상의 표현에는 중국 남조(南朝)부터 당(唐)에 이르는 조형상의 영향이 지적되지만, 키토라 고분 벽화가 고풍스럽다. 키토라의 사신에서는 백호가 북쪽으로 향해 그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예는 당(唐) 거울 등에는 거의 보여 지지 않지만, 정창원 소장 사신십이지경(四神十二支鏡)과 공통된다. 이 거울에 있는 청룡·백호는 모두 꼬리를 뒷발 아래에 감은 채 서있는데, 이 점은 다카마츠츠키 고분 및 키토라 고분에 있는 것과 공통되며, 거울 자체도 일본제로 생각된다.

다카마츠 고분 벽화의 인물상은 7세기 후반기의 후지와라교(藤原京) 출토의 목간낙서(木簡落書)나 주우구지(中宮寺) 소장의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에 유사한 예가 있어, 동 시대의 일본인 풍속을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표현에는 당(唐)대 회화의 영향이 강하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8세기에 들어선 이후의 작품이다. 예를 들면, 동벽(東壁) 남성의 옆 얼굴 등은 당대(唐代)의 7세기에서 8세기 초경의 묘(墓) 벽화와 유사하며, 서벽(西壁) 여자의 치마에 그려진 옆모습의 주름 표현은 당(唐)의 위(韋, ★Jiong)묘나 설(薛, ★XuiJing)묘의 석각화(石刻畫)에서 확인된다. 다만, 다카마츠츠키 고분 인물의 복장은 당묘(唐墓) 벽화에서 보여 지는 것과 다르며, 오히려 고구려 고분벽화에 연결되는 것이다.

키토라 고분벽화의 십이지상에서는 인상(寅像)만이 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은 호랑이 머리를 지닌 인물 표현으로서, 당대(唐代)의 묘지에 있는 것과 같은 동물표현과는 다르다. 또한 수당(隋唐)의 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문관풍(文官風)이 아니라 손에 쌍날

창(鎗)과 같은 무기를 지니고 있다. 이점은 한국 경주의 능묘 주위를 둘러싼 부조십이지장상(浮彫十二支將像)에 가깝지만, 이것들은 8세기 중반 이후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화제의 내용과 그 표현양식에서 볼 때 키토라 고분은 십이지의 존재에서, 다카마츠츠키 고분은 남녕군상의 표현에서, 한반도와는 고구려 고분에서부터 통일신라왕조에 이르는 사이, 중국과는 초당(初唐)에서 성당(盛唐) 전기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에 관해서는 고구려 고분 혹은 당대(唐代) 묘의 벽화로부터의 영향관계가 떠들썩하게 논해져 왔지만, 8세기 초엽 경에는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중국에서 문물이 유입되기에 이르렀기에, 복합적으로 고찰하여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화기법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 고분 모두 응회암의 표면에 탄산 칼슘(석회)을 얇게 발라 바탕을 만들고 하도(下圖)를 그린 후에 착색하였다. 키토라 고분에서는 하도를 벽면에 대고, 위에서부터 끝이 표쪽한 주걱이나 각필(角筆) 같은 것으로 선을 따라 바탕에 그렸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이것은 호오류지 금당 벽화에서도 이용된 기법이지만, 다카마츠 고분 벽화에서 그와 같은 각선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중국 당대(唐代)의 영태공주묘(永泰公主墓)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거친 덧상을 겹친 밀선묘와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하도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그려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카마츠츠키 고분 벽화에서만 탄산 칼슘 외에 납성분이 검출되었는데, 그림부분일수록 그 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탕으로서 연백(鉛白)을 칠한 것으로 추측된다.

백색 바탕위에 도안을 담묵선(淡墨線)으로 본 뜬 뒤 그 위에 채색을 하며 마지막으로 조금 진한 묵선으로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정의 별은 금박이 붙여지고, 붉은 선으로 연결하여 성좌형태를 만든다. 키토라 고분의 경우는 컴퍼스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기도 하였으며, 다카마츠츠키 고분에서는 자를 사용하여 직선을 그었다.

다카마츠츠키 고분벽화의 경우, 녹색과 청색은 (孔雀石과 藍銅鑲-염기성 탄산동), 황색은 산화철, 붉은 색은 유황화 수은과 다른 한 가지 종류이며, 금과 은도 사용되었다. 근래에 들어 청색에는 라피스라즈리가 사용되었다는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했지만 이 논거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키토라 고분 벽화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안료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